

# 인문학자의 전자정보원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the Usage of Electronic Information Resources of the Humanities Scholars in Korea

윤 정 옥(Cheong-Ok Yoon)\*

### 목 차

- |                 |                        |
|-----------------|------------------------|
| 1. 서론           | 4. 인문학자의 전자정보원 이용행태    |
| 2. 선행연구의 분석     | 4.1 전자자료의 발견과 접근       |
|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 4.2 전자정보원의 접근방법 인지도    |
| 3.1 연구의 내용과 범위  | 4.3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전자정보원   |
| 3.2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 4.4 전자정보원의 장·단점에 관한 인식 |
| 3.3 응답자의 특성     | 5. 결론 및 제언             |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인문학자들의 전자정보원 이용행태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대학도서관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스물다섯 개 대학 소속 인문학 분야 교수 중 799명을 표본으로 확정된 후,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월 사이 우편 서베이를 실시하여, 모두 132개의 분석 가능한 설문을 수집하였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연구와 교육에 균등한 시간을 배분하며, 주로 단독연구를 수행하는 독자적 연구자들이다. 이들은 지난 일 년 간 수행한 연구를 위해 어느 정도 전자자원을 이용하였고, 대학도서관 전자 컬렉션을 정보원으로 사용하였으며, 대부분 텍스트형태의 전자자원에 의존하였다. 이들이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전자정보원은 학술논문 입수 정보원을 제외하고는 개별 연구자마다 상이하여 분산되어 있었다. 인문학자들은 전자정보원의 접근과 이용편이성 등을 높이 평가하였으나, 내용의 제한 및 품질 등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대체로 자신의 전자정보원 이용 및 검색 능력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대학도서관은 인문학자들을 위해 (1) 대학도서관 웹사이트의 주요한 내·외부 전자자원의 관문 역할 수행, (2) 진정한 전자자원의 관문으로서 단일경로 접근 및 통합검색 방법 제공, 및 (3) 도서관 내외부 전자자원 활용을 위한 "맞춤형" 이용교육 강화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use of the electronic information resources of humanities scholars in Korea and propose the planning of academic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to serve their needs. To collect data, a postal survey was conducted during the period of November 2007 through January 2008. Out of 799 humanities scholars sampled from 25 universities, 132 responded with a completion rate of 16%.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majority of humanities scholars distribute their time equally between research and education, and conduct independent research. Secondly, they use, to a certain degree, electronic information resources largely in text format, and depend upon the electronic collection of their academic libraries. Thirdly, with the exception of a couple of sources of electronic journal resources, the electronic resources that these humanities scholars regularly use vary so widely that none could be considered to be a common resource. Fourthly, they value the convenience of accessing and using electronic resources, but worry about the quality and scope of the contents. It is suggested that academic libraries (1) become the gateway for the electronic information that is available both inside and outside the library, (2) provide integrated search feature for and a 'single sign on' access to electronic resources, and (3) plan customized user education for specific subject fields in the humanities.

키워드: 인문학자, 정보행태, 전자정보원이용, 대학도서관,  
Humanities Scholars, Information Behavior, Use of Electronic Information Resources,  
Academic Libraries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전공 교수(jade@cju.ac.kr)  
논문접수일자: 2009년 4월 20일 최초심사일자: 2009년 5월 12일 게재확정일자: 2009년 6월 1일

## 1. 서론

지난 십여 년 사이에 대학도서관은 학술전자 자원의 급격한 증가 및 전자정보원의 다각화로 인하여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대학도서관은 아직도 대부분의 인쇄 및 전자자원의 제공자로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네트워크된 디지털 환경은 최종이용자들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많은 새로운 유형의 자원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학자, 연구팀, 협회 등 다양한 주체가 생산하고 배포하는 디지털 학술자원이 증가하고, 매우 분산된 방식으로 배포되어, 지금까지 모든 학문분야의 가치 있는 자원에 익숙해 있는 대학도서관들조차도 그 범위와 종류를 완전히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Maron and Smith 2008). 이러한 변화는 대학도서관의 주요한 이용자이자 학술정보환경의 핵심적 구성원인 학술연구자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에 또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두드러진 변화는 점점 더 많은 학술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인쇄자원보다 컴퓨터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학술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요구와 이들의 정보추구행태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과학·기술 및 사회과학과 같은 주제 분야의 연구자들에 비하여, 인문학자들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이들이 급격히 전자화되는 학술정보환경에서 어떤 요구와 행태를 보이는가에 대해서는 2000년대 이후에야 비로소 본격적 연구들이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해외에서는 Brockman 등(2001), 영국 브리스톨대학의 SIRU(2002), Tenopir(2003),

Maron과 Smith(2008)의 연구 등 다수의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십여 년 사이에 대학도서관 시설과 서비스의 전자화, 기념비적 규모의 디지털도서관 건립, 해외 전자자원의 구입 예산 급증, 캠퍼스의 '유비쿼터스화' 등 외형적 전자 환경 변화가 두드러지는 데 비하여, 학술연구자 집단의 주요한 축이 되는 인문학자들이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하여 보이는 정보요구 및 정보추구행태의 현상과 변화에 대해서는 포괄적,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논문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인문학자들을 둘러싼 학술정보환경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한 연구의 일부로서, 특별히 이들의 전자자료 및 전자정보원 이용행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선행연구의 분석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것처럼 대학을 중심으로 한 학술정보환경에서 다양한 주제 분야 학술연구자들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그 가운데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이전부터 매우 폭넓게 수행되어 왔으나, 인문학자들에 대한 관심은 훨씬 나중어야 나타나기 시작하였다(Case 2003). 그동안 대학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에서 전통적정보원, 자료 및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많은 연구가 누적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급증하기 시작한 인터넷과 웹, 각종 전자자원의 이용을 중심으로 한 정

보요구 및 정보추구행태에 대한 연구들이 보다 활발해지게 되었다.

인문학자들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를 다룬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이다.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Bates의 연구(1996)를 비롯하여 Wiberley, Jr.와 Jones가 지속적으로 발표한 일련의 연구(1989, 1991, 1994), East(2005), Pankake(1991), de Tiratel(2000)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Wiberley, Jr.와 Jones(1989)는 1987-88년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의 인문학연구소(Institute for the Humanities) 소속 11명의 연구자를 심층적으로 인터뷰하여, 이들이 전문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일차자료와 이차 자료를 읽는 것을 주요한 수단으로 삼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연구하는 데 투입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인문학자들은 주로 독자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자연과학자나 사회과학자들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과 상이한 행태를 보임을 입증하였다. Wiberley, Jr.(1991)는 이후에 다시 동일한 연구소에 소속된 20명의 연구자를 인터뷰하여, 인문학자들이 컴퓨터, 기계가독정보원, 이메일 등과 같이 당시로서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보다 잘 채택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대체로 과학자들의 행태에 근거하여 형성된 정보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Pankake(1991)도 Wiberley, Jr.과 유사한 점을 지적하였다. 그녀는 인문학 분야의 대규모 상업 데이터베이스들이 “과학분야의 모델”에 근거하여 정기간행물의 논문만을 강조하고 있어, 인문학자들이 사용하는 자료의 유형과 컴퓨터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일

치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Wiberley, Jr.와 Jones(1994)는 이전 연구에서 인터뷰하였던 동일한 인문학자들을 1992-93년 다시 인터뷰하였다. 이들은 이 연구자들이 연구를 위해 도서관 장서에 부분적 혹은 전적으로 의존하지만, 일반참고사서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전공에 따라 아카이브나 특수장서를 다루는 전문사서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이는 이전 연구에서 발견하였던 인문학자들의 특성이 거의 변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 인문학자들도 아직 다양한 정보기술을 사용하지 않지만, 워드프로세싱을 정기적, 일상적으로 이용하게 되었고, OPAC도 널리 이용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서서히 정보기술의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면모를 보였다.

인문학자의 정보행태에 관한 대표적 연구로서 널리 인용되는 Bates의 연구(1996)는 Everett Rogers의 ‘개혁신산이론’에 근거하여, Getty Research Institute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인문학자 및 예술가들의 멀티미디어 이용에 관련된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새로운 정보기술 채택과 이용행태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Brockman 등은 1999년 시작된 Scholarly Work in the Humanities Project를 통해서 미국 대학의 인문학자들이 어떻게 일하며, 그들의 업무에 기술을 통합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미래의 기술이 인문학연구의 목표와 관련하여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들은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과 University of Chicago 소속 인문학 전공교수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업무현장 관찰 등으로 구성된 사

례연구를 수행하여, 많은 인문학자들이 급격한 기술적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인문학자들은 해당 주제 분야 일차자료의 검색, 접근, 이용 및 주변 분야의 이차자료 추적 등과 같은 “전통적인 연구기능”에 정보기술을 도입하였고, 데스크탑에 제공되는 온라인 형태의 정보에 익숙해졌으며, 어떤 경우에는 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Brockman, et al. 2001).

Tenopir(2003)는 1995년부터 2003년 사이에 수행된 도서관 전자자원 이용에 관한 여덟 개의 대규모 연구와 백여 편의 소규모 연구들을 분석하여, 상이한 주제 분야와 업무 영역의 전문가들은 인쇄나 전자자료의 이용패턴과 선호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쇄자료는 거의 모든 주제 분야에서 아직도 상당히 읽히고 있지만, 인문학자들에게 특별히 중요하며, 이들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자들과 비교할 때 전자저널 및 기타 디지털 도서관자료를 아직 그리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유럽에서 이루어진 연구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탈리아의 University of Parma에서 고전 및 중세연구 분야 학생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수행한 Bevilacqua(200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Bevilacqua는 인문학이 전자학술지의 이용 연구에서 가장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분야이며, 그 이유는 아직도 이 주제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자학술지가 매우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응답자들은 이 대학에서 구독하는 3,700여 전자학술지 가운데 이용 가능한 고전 및 중세연구 분야의 80여 종 학술지에 대하여 잘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용 경험도 낮았으며, 이를 알더라도

인쇄학술지를 선호하는 등 그동안 알려져 왔던 인문학자들의 전반적인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Gardiner, McMenemy와 Chowdhury(2006)는 영국 대학에서 컴퓨터정보학, 비즈니스/경영학, 영문학의 세 분야 연구자 97명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검색 엔진의 일반적 이용, 인쇄 및 전자정보자원의 이용 및 그에 대한 태도, IT 기술과 정보리터러시, 물리적 도서관 이용과 전자적 접근, 가상도서관에 대한 태도 등을 연구하였다.

Talja와 Maula(2003)는 2000년 핀란드의 두 개 대학에서 소속된 간호학, 문헌/문화학, 역사학 및 생태환경학의 네 분야 연구자 44명의 전자학술지와 데이터베이스 이용행태를 조사하였다. 이들은 Bates가 이전의 연구에서 가설을 세운 것처럼 “영역규모(domain size)”, 즉, 분야의 모든 자료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주제적으로 적합한 자료의 분량이 검색 방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인문학자들은 간호학과 생태환경학 연구자들에 비하여 전자학술지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도가 훨씬 낮고, 인터넷 홈페이지, 주제 디렉토리, 책, 인쇄학술지, 출판사 및 도서관 목록 등의 브라우징이나 이미 알고 있는 문헌에서 발견한 서지 참고문헌 정보를 따라가는 “연쇄검색(chaining)” 의존도가 높음을 발견하였다.

de Tiratel(2000)은 그동안 문헌정보학 연구에서 미국이나 유럽의 문헌에 의존하여 인문학 및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정보이용 및 행태를 이해하려고 했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아르헨티나의 18개 대학에 소속된 53명의 철학, 문학 및 예술 분야의 인문학 연구자와 61명의 사회과학 연구자를 서베이 하였다. 인문학자들은 사회과

학 연구자들보다 도서관 의존도가 더 높았고, 더 오래된 자료들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는 이전에 보다 발전된 정보시스템과 서비스를 가진 나라들의 이용 및 이용자 연구에서 발견된 것들이 비교적 덜 발전된 시스템과 자료의 입수 어려움을 가진 아르헨티나와 같은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여기에서 언급한 연구들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에 미국, 유럽, 남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수행된 것들로 인문학자들의 요구와 행태만을 연구한 것도 있으나,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 다른 주제 분야 연구자들과 비교하는 관점을 가진 것들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이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인문학자들은 대체로 독자적 연구자로서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과 구별되는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를 보이며, 급격히 확산되는 전자자원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최근의 학술정보환경에 비교적 느린 속도가긴 하지만 점차 적응해 나가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직도 전통적 정보원이나 인쇄자료에 대한 의존, 자료 탐색 방법 등에서 보이는 행태적 특성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 3.1 연구의 내용과 범위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에 소속된 인문학자들의 연구 수행과 관련된 전자정보원 이용

행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들이 지난 일 년 동안 수행 완료하였거나 현재도 계속 수행 중인 연구를 위한 자료를 전자형태로 입수한 정도, 이러한 전자자료를 자신의 소속기관 도서관 웹사이트(전자 컬렉션)에서 입수한 정도, 주로 사용하는 전자자료의 유형, 전자정보 접근 방법에 대한 인지도, 실제로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전자정보원, 및 전자정보원의 장·단점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 3.2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데이터는 수도권과 각 지방 권역의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학을 각각 열한 개씩 표본 선정하고, 세 개의 대학을 임의로 선정하여 스물다섯 개 대학의 인문학 분야) 전임교수들 가운데 799명을 설문조사 대상으로 확정된 후,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월 사이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모두 132개의 설문을 수집하였다. 데이터는 '한글판 SPSS 버전12'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응답의 단순빈도 분석 및 연구자의 경력에 따른 세 개 집단에 대한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 3.3 응답자의 특성

서베이 응답자 132명 가운데 분석 가능한 121명 중 88.4%(107명)가 남자였고, 11.6%(14명)가 여자였다. 응답자들(125명)의 전임교수로서의 경력은 임용 첫해(1명, 0.8%)부터 33년(1명, 0.8%)까지 범위에 놓여 있으나, 평균은

1) 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표 인문학" 참조.

15.25년(표준편차 8.823)이었다. 이들을 전임교수로서의 경력에 따라 신진연구자(5년 이하),<sup>2)</sup> 중견연구자(6-15년) 및 최고경력자(16년 이상)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신진연구자에 속한 응답자들은 모두 23명(17.8%), 중견연구자는 44명(34.1%) 및 최고경력자는 58명(45.0%)이었다. 이렇게 연구자 집단을 구분한 이유는 이들의 경력에 따라 정보행태에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최종학위에 대한 응답자(128명) 가운데 절대 다수(127명, 99.2%)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고, 단 한명만이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었다. 한편 응답자들 가운데 전공을 밝힌 사람들은 118명으로,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철학과, 종교학과 등 모두 열다섯 개 전공분야로 분산되어 있다.

#### 4. 인문학자의 전자정보원 이용 행태

이 연구에서 살펴본 인문학자들의 일반적 특성 및 정보자원 이용행태는 이전 연구에 상세히 보고된 바 있으며(윤정옥 2009),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인문학자들은 일상적 업무 시간을 연구와 교육에 거의 같은 비중으로 할애하며, 대체로 단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책이나 학술지 논문 등 인쇄자료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고서나 고문서 같은 자료들도 비교적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전자학술지나 전자원문 등 텍스트 형태의 전자자료도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었으며, 앞으로 오년 동안의 변화에 대한 전망에서 이러한 전자자료에 대한 의존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인문학자들은 신문·잡지, 지도자료, 사진/이미지 등 시각자료, 동영상/음향, 실물, 마이크로물 등의 전통적인 비인쇄형 도서관 자료 및 전자프린트와 데이터세트의 이용도는 매우 낮았고, 앞으로 이용빈도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지도 않았다. 결국 인문학자들은 인쇄형이든 전자형이든 텍스트 형태의 자료에 거의 의존하며, 이들이 현재 많이 이용하며 가장 중요시 하고 있는 주요 인쇄자료의 이용빈도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 한편, 전자자료 이용빈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인문학자들을 대학의 전임 임용 경력에 따라 신진연구자, 중견연구자, 최고경력자 집단으로 구분하여 행태의 몇 가지 특성을 교차분석한 결과는 분명 집단별로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전자자료의 이용 면에서 그러했다. 전체 응답자 집단이 크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의 분석을 시도하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신진연구자들은 전자자료에 대한 현재 이용빈도, 향후의 이용 전망 등이 다른 두 집단의 연구자들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보였고, 또한 중견연구자들은 신진연구자보다는 낮지만 최고경력자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경력에 어느 정도 반비례하는 관계를 시사하고 있었다. 다음에서는 이

2) 박사학위 과정은 개별 학문분야의 규범과 연구방식을 습득하는 기간이라고 할 때(Bates 1996), 이 연구에서는 학위의 취득 후 대학에서 전임교수의 직을 가짐으로써 독립된 연구자로서 자격을 갖추었다고 정의한다. 또한 학술진흥재단에서도 '신진교수'를 임용 5년 이내로 정의하고 있다

들이 전자자원 및 전자정보원을 이용하는 데 관련된 특성을 기술 및 분석하도록 한다.

#### 4.1 전자자료의 발견과 접근

이 연구에서는 인문학자들이 지난 일 년 동안 수행 완료하였거나 현재도 계속 수행 중인 연구를 위한 자료/정보(이하 '자료'라 함)를 얼마나 전자형태/온라인(이하 '전자형'이라 함)으로 입수할 수 있었는지, 이 가운데 어느 정도를 자신의 소속기관 도서관 웹사이트(전자 컬렉션)에서 입수했는지, 주로 사용하는 전자자료의 유형은 무엇인지, 전자정보 접근 방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전자자료의 일반적 이용행태보다는 일정한 기간 내 수행한 특정한 연구를 위한 실제적인 이용행태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 4.1.1 전자자료의 입수

〈표 1〉은 인문학자들이 지난 일 년 동안 수행 완료하였거나 현재도 계속 수행 중인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전자형으로 입수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응답자 127명 가운데 33.9%는 자신의 연구에 사용하는 자료를 전자형으로 입수하는 비율이 25% 이하라고 하였고, 30.7%는 26-50% 정도라고 하였다. 전자형으로 자료를 전혀 입수하지 않는다고 한 8.7%를 포함하여, 응답자의 73.3%가 전자형 자

료를 입수하는 비율이 50%를 넘지 않는다고 하였다. 아직은 인문학자들에게 전자형 자료의 비중이 절대적은 아님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편으로 8.7%는 사분의 삼 이상을, 16.5%는 절반에서 사분의 삼 정도를 전자형으로 입수한다고 각각 응답함으로써, 아직은 소수이긴 하지만 인문학자들 가운데 현재 시점에도 전자자료 의존율이 더 높은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정보 입수에 관련된 응답의 범주를 매우 포괄적으로 정하였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입수율 1-25%'의 범주에 표시한 응답자의 실제 입수율이 1%일 수도 있고 10%나 25%일 수도 있다. 따라서 동일한 범주라고 응답한 사람들 사이에 큰 편차가 있으므로,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은 분포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자신이 입수하는 전자정보의 양이 정확히 몇 %인지 인식하기보다는 한 사분의 일 정도, 반 정도와 같이 비교적 넓은 범위로 인식하고 있다고 추정하면, 일반적인 입수 정도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 4.1.2 소속기관 도서관에서의 전자자료 입수

〈표 2〉는 인문학자들이 지난 일 년 동안 전자형으로 입수한 자료나 정보 가운데 자신의 소속기관 도서관 웹사이트(전자 컬렉션)에서 입수한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응답자 111명 가운데 전자자료를 소속기

〈표 1〉 전자자료의 입수

전자자료 입수	0%	1-25%	26-50%	51-75%	76-100%	모름	응답자
빈도	11(8.7%)	43(33.9%)	39(30.7%)	21(16.5%)	11(8.7%)	2(1.6%)	127명

〈표 2〉 소속기관 도서관에서의 전자자료 입수 비율

도서관입수율	0%	1-20%	21-40%	41-60%	61-80%	81-100%	응답자
빈도	5(4.5%)	26(22.4%)	25(22.1%)	27(24.3%)	19(17.1%)	9(8.1%)	111(100%)

관 도서관 웹사이트에서 41-60% 정도 입수했다고 한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27명, 24.3%). 한편 도서관에서 입수한 비율이 20% 이하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모두 26.9%(31명)로, 그 가운데 5명(4.5%)은 도서관에서 전혀 입수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50% 이상을 도서관에서 입수하였다고 한 사람이 응답자의 절반이 약간 안 되는 정도였고(54명, 48.6%), 그 가운데는 80% 이상을 소속기관 도서관에서 입수하였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있어(9명, 8.1%), 현재 시점에서 인문학자들에게 도서관 웹사이트가 어느 정도는 비중이 높은 전자정보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1.3 이용한 전자자료의 유형

〈표 3〉은 인문학자들이 지난 일 년 동안 전자형태로 이용한 자료나 정보가 주로 어떤 유형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응답자 88명 가운데 전자자료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두명(2.3%)을 제외하고는, 절대다수인 84.1%(74명)가 텍스트원문을 이용했다고 응답하였다. 서지/초록/색인정보는 응답자의 9.1%(4명), 수치 데이터 등은 2.5%(4명)의 적은 수만이 이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실제 설문항목에서는

사진, 이미지 등 시각자료, 동영상 시각자료, 멀티미디어 및 기타 자료 등을 제시하였으나, 응답자들은 이 세 가지 유형의 전자자료만을 사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전의 다른 연구들은 서지/초록/색인정보 등의 이차정보를 전자자료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고한 바 있는데, 이 연구에서 살펴본 인문학자들은 전자자료 이용 시 텍스트 원문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았다.

## 4.2 전자정보원의 접근방법 인지도

### 4.2.1 전자정보원의 검색, 접근 및 이용방법의 인지도

〈표 4〉는 인문학자들이 전자정보원의 검색, 접근 및 이용 방법에 대한 자신의 지식 정도를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도서관이 보유한 전자자원 컬렉션의 접근방법, 소속기관 도서관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외부 기관 컬렉션 이용방법, 전문적인 온라인 검색 및 검색기술과 기법, 온라인 정보를 내 요구에 맞게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방법, 웹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고급정보원을 찾는 방법, 온

〈표 3〉 이용한 전자자료의 유형

전자자료	텍스트 원문	수치데이터 등	서지/초록/색인정보	사용 안 함	응답자
빈도	74(84.1%)	4(2.5%)	8(9.1%)	2(2.3%)	88(100%)



〈표 4〉 전자정보원의 검색, 접근 및 이용 방법의 인지도

전자정보원 접근방법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음	비교적 잘 알고 있음	보통	거의 모름	전혀 모름	응답자 총수
소속기관 도서관이 보유한 전자자원 컬렉션의 접근방법	24 (19.0%)	39 (31.0%)	41 (32.5%)	19 (15.1%)	3 (2.4%)	126 (100%)
소속기관 도서관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외부기관 컬렉션 이용방법	15 (11.9%)	28 (22.2%)	50 (39.7%)	28 (22.2%)	5 (4.0%)	126 (100%)
전문적인 온라인 검색 및 검색기술과 기법	11 (8.8%)	38 (30.4%)	47 (37.6%)	25 (20.0%)	4 (3.2%)	125 (100%)
온라인 정보를 내 요구에 맞게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방법	7 (5.6%)	32 (25.8%)	44 (35.5%)	36 (29.0%)	5 (4.0%)	124 (100%)
웹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고급정보원을 찾는 방법	4 (3.3%)	29 (23.6%)	51 (41.5%)	34 (27.6%)	5 (4.1%)	123 (100%)
온라인 아카이브를 찾거나 만드는 방법	3 (2.5%)	12 (9.8%)	38 (31.1%)	55 (45.1%)	14 (11.5%)	122 (100%)
이용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	6 (5.0%)	15 (12.5%)	48 (40.0%)	42 (35.0%)	9 (7.5%)	120 (100%)

라인 아카이브를 찾거나 만드는 방법, 이용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일곱 개의 항목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인문학자들은 이들 중 온라인 아카이브를 찾거나 만드는 방법을 제외한 여섯 개 항목에 대하여 자신이 “보통”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전체적으로 자신들이 전자정보원과 온라인 자료를 찾고, 접근하고,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였다.

먼저 소속기관 도서관이 보유한 전자자원 컬렉션의 접근방법, 소속기관 도서관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외부기관 컬렉션 이용방법, 전문적인 온라인 검색 및 검색기술과 기법, 그리고 온라인 정보를 내 요구에 맞게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방법이라는 네 개 항목에 대하여 인문학자들은 매우 잘 알거나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거의 잘 알지 못하거나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는 비율보다 높았다.

특히 소속기관 도서관이 보유한 전자자원 컬렉션의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126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매우(19.0%) 혹은 비교적(31.0%)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거의 잘 알지 못한다거나(15.1%)이나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들(2.4%)보다 훨씬 많았다. 물론 전체에서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32.5%)이 가장 높았으나 대체로 자신의 지식 정도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소속기관 도서관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외부기관 컬렉션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매우 혹은 비교적 잘 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았지만, 잘 알지 못한다고 한 사람들과 그리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전체 응답자 125명 가운데 11.9%가 매우 잘 안다고 하였고, 22.2%는 비교적 잘 안다고 하였다. 또한 전문적인 온라인 검색 및 검색기술과 기법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125명) 가운데 39.2%가 매우 혹은 비교적 잘 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인문학자들은 소속기관 도서관이 아닌 웹상에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전자자료를 찾고 처리하는 방법의 지식 수준에 대해서는 스스로 그리 높은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온라인 정보를 내 요구에 맞게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방법과 웹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고급정보원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혹은 전혀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매우 혹은 비교적 잘 안다고 대답한 사람들보다 약간 더 많았다. 특히 온라인 아카이브를 찾거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124명의 응답자 가운데 거의 잘 알지 못한다고 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45.1%), 전혀 잘 알지 못한다고 한 사람들(11.5%)까지 합하면, 매우(2.5%) 혹은 비교적(9.8%) 잘 안다고 한 응답자들과 차이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용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계속 주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한 응답자들이 많았다. 전체 응답자 120명 가운데 40.0%가 보통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그 다음으로는 거의 모른다고 한 응답자들이 많았다(35.0%).

여기에서는 인문학자들이 전자정보원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지식 정도를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따라서 이들이 실제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즉 실제적 지식 상태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이 전체적으로 전자자료와 온라인 정보원을 찾고, 접근하고,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신의 지식 정도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전자자료와 온라인 정보원에 대한 지식 혹은 자신감이 없어서 이용하지 않는다고는 하기 어렵다. 어쩌면 그들이 비교적 잘 알고 있어도 자신이 이용하기에 적

합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적합한 자원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여기서 제시한 일곱 개 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적합한 전자정보원의 선정 능력(예를 들어, 인문학 분야의 색인·초록·원문 데이터베이스와 전자저널의 구별 및 선택), 각 정보원에 필요한 접근 및 검색의 능력(예를 들어, 학술 데이터베이스 벤더마다 상이한 로그인 등 다양한 접근방식, 검색 방법 등), 검색된 정보 혹은 자료의 해석, 처리와 조작 능력(예를 들어, 다양한 파일 형태의 다운로드와 저장, 서지정보에서 원문으로의 검색 혹은 링크 등) 등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 연구에서 인문학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범위에 대하여 매우 광범하게 응답할 것만을 요구하였으므로, 응답은 매우 일반적인 수밖에 없다. 향후 인문학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인 지식의 정도를 평가 및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지식상태를 평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객관적이며 상대적인 지식수준의 평가도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4.2.2 연구자 집단별 전자정보원의 접근방법 인지도

여기에서는 <표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문학자들이 자신의 전자정보원의 검색, 접근 및 이용 방법 지식정도를 평가한 것에 대하여 연구자 집단별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앞서 정의한 대로 신진연구자, 중견연구자 및 최고경력자의 세 개 집단이 소속기관 전자정보 컬렉션의 접근방법 인지도 및 소속기관 도서관을

통해 접근 가능한 외부기관 컬렉션 이용방법 인지도의 두개 항목에 대하여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연구의 경력에 따라 스스로 평가하는 인지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의 분석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표 5〉는 세 개의 연구자 집단이 자신의 소속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정보 컬렉션에 대한 접근방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 신진연구자는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한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39.1%), 매우 잘 알고 있다고 한 사람들의 비율도 상당히 높아(34.8%), 전체적으로 73.9%가 자신들의 지식정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그에 비하여 중견연구자나 최고경력자는 보통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각각 35.7%와 37.9%로 가장 높았고, 매우 잘 알

고 있다고 한 사람들의 비율은 각각 16.7%와 15.5%로 그보다 훨씬 낮았다. 한편 신진연구자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없었던 것에 비하여, 중견 및 최고경력자는 소수이지만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신진연구자가 다른 두 집단보다 소속기관이 보유한 전자정보 컬렉션에 대한 접근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6〉은 세 개의 연구자 집단이 자신의 소속기관 도서관을 통하여 접근 가능한 외부기관 컬렉션 이용방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 이처럼 연구자 집단별로 교차분석한 결과는 앞서의 소속기관 도서관 전자정보 컬렉션 접근방법 인지도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신진연구자는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반면에, 중견연구자와 최고경력자는 보통이라고 응

〈표 5〉 소속기관 보유 전자정보 컬렉션의 접근방법 인지도의 연구자 집단별 분포

연구자 집단	매우 잘 알고 있음	비교적 잘 알고 있음	보통임	거의 잘 알지 못함	전혀 알지 못함	응답자
신진연구자	8(34.8%)	9(39.1%)	4(17.4%)	2(8.7%)	0	23(100%)
중견연구자	7(16.7%)	14(33.3%)	15(35.7%)	5(11.9%)	1(2.4%)	42(100%)
최고경력자	9(15.5%)	13(22.4%)	22(37.9%)	12(20.7%)	2(3.4%)	58(100%)
결측	0	3	0	0	0	3
합계	24	39	41	19	3	126

〈표 6〉 접근 가능한 외부기관 컬렉션 이용방법 인지도의 연구자 집단별 분포

연구자 집단	매우 잘 알고 있음	비교적 잘 알고 있음	보통임	거의 잘 알지 못함	전혀 알지 못함	응답자
신진연구자	5(21.7%)	9(39.1%)	5(21.7%)	4(17.4%)	0	23(100%)
중견연구자	5(11.9%)	12(28.6%)	17(40.5%)	5(11.9%)	3(7.1%)	42(100%)
최고경력자	5(8.6%)	6(10.3%)	27(46.6%)	18(31.0%)	2(3.4%)	58(100%)
결측	0	1	1	1	0	3
합계	15	28	50	28	5	126

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매우 잘 안다고 한 응답자의 비율은 신진연구자, 중견연구자, 최고경력자의 순으로 낮아졌고, 최고경력자 가운데 거의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던 것(31.0%)을 보면, 최고경력자들은 전반적으로 소속기관의 것이든 외부기관의 것이든 전자자원 컬렉션에 대한 접근 및 이용방법에 대한 자신의 지식 정도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신진연구자들은 자신의 지식 정도를 비교적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하겠다.

#### 4.3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전자정보원

〈표 7〉은 인문학자들이 자신의 주제 분야에서 현재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전자정보원들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얻기 위하여 가장 자주 사용하는 전자학술지,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등의 전자정보원을 이용 빈도 순으로 세 가지까지 열거하라고 한 질문에 대하여, 모두 78명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전자정보원을 언급하였다. 또한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자주 사용하는 정보원은 각각 68명과 59명이 응답하였다.

〈표 7〉는 응답자들이 정기적으로 사용한다고 한 연구정보의 전자정보원 가운데 두 번 이상 언급된 것만을 보여준다. 실제로 응답자들이 정기적으로 사용한다고 한 전자정보원은 모두 110개에 달하였고, 그 가운데 69개의 정보원이 단 한 번씩만 언급되었을 뿐이다(62.7%). 이들은 매우 다양한 성격을 가졌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KISS(한국학술정보), DBPIA(누리미디어), JSTOR,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소수의 정보원만이 여러 차례 언급되었을 뿐, 거의 대부분 한두 번씩 밖에 언급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매우 다양한 정보원이 분산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프랑스 Google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전자정보원이라고 한 사람이 응답하였고,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로 자주 사용하는 정보원이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또한 한국문학회 홈페이지는 세 번째로 자주 사용하는 정보원이라고 한 사람이 응답하였으나, 가장 자주 사용한다거나 두 번째로 자주 사용하는 정보원이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처럼 〈표 7〉에 포함되지 않은 한 번씩만 언급된 69개의 전자정보원 가운데에는 ACRL(Association of College & Research Libraries)이나 ALA(미국도서관협회)와 같은 전문직협회 또는 American Psychological Society, 한국문학회, 한국고소설학회와 같은 학회의 웹사이트, Harvard University 도서관, 러시아 INION 도서관, 충북대학교 도서관과 같은 국내의 대학 도서관 웹사이트 등이 있는가 하면 Russian Review, TESOL Quarterly, '철학탐구' 등과 같은 단일 학술지, ERIC, PubMed, Sciencedirect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한국학술진흥재단, 국립국어연구원과 같은 기관의 웹사이트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각각의 전자정보원은 단 한 사람씩만이 가장 중요한 전자정보원 혹은 두 번째나 세 번째로 중요한 전자정보원이라고 한 것이다.

전체 전자정보원 가운데 두 번 언급된 전자정보원은 국가지식포털, 국가전자도서관(NDL), Amazon.com 등 정보원은 12개(10.9%), 세 번 언급된 정보원은 민족문화추진회(고전번역원) 웹사이트, 서울대 규장각, 검색엔진 야후

〈표 7〉 가장 자주 사용하는 전자정보원

전자정보원명	정보원1	정보원2	정보원3	총수
Amazon.com	1	1	0	2
CNKI(중국학술지)	2	0	1	4
CNKL(중국학술지, 학위논문서비스)	1	0	1	2
DBPIA(누리미디어)	3	8	1	12
Google	1	1	3	5
JSTOR	7	1	0	8
KISS(한국학술정보)	11	9	2	22
LION(Literature online: 영미문학 DB)	0	0	2	2
LISA	1	1	0	2
MLA Bibliography	1	1	0	2
MUSE 혹은 Project Muse	0	2	0	2
NAVER	2	1	4	7
yahoo.co.kr 혹은 yahoo.com	0	1	2	3
국가전자도서관(NDL)	0	1	1	2
국가정보(국가지식포털. <a href="http://www.knowledge.go.kr">http://www.knowledge.go.kr</a> )	1	0	1	2
국립중앙도서관 웹사이트	1	0	2	3
국사편찬위원회	0	2	1	3
국회도서관 혹은 DB 혹은 전자도서관	1	4	2	7
독일문학	0	0	1	0
독일언어문학	2	0	0	2
민족문화추진회(고전번역원) 웹사이트	2	1	0	3
서울대 규장각	1	1	1	3
온라인서점(알라딘, yes24, 교보문고)	1	3	1	5
장서각	0	0	2	2
충북대전자도서관	2	0	0	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a href="http://www.riss4u.net">www.riss4u.net</a> )	7	4	4	15
한국학중앙연구원 웹사이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디지털한국학	3	2	2	7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한국역사종합정보센터, 국사편찬위원회. <a href="http://koreanhistory.or.kr">http://koreanhistory.or.kr</a> )	2	1	1	4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a href="http://www.fle.or.kr">www.fle.or.kr</a> )	0	0	2	2

(yahoo.co.kr 혹은 yahoo.com) 단 3개였다(2.7%). 예를 들어, 두 번 언급된 국가전자도서관은 한 사람이 두 번째로 중요한 전자정보원으로서,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세 번째로 중요한 전자정보원으로서 언급하였고,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전체 전자정보원 가운데 자주 사용하는 정보원으로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KISS(한국학술정보)로서 모두 22명이 이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 가운데 11명이 첫 번째로 자주 사용한다고 하였고, 9명은 두 번째로, 그리고 2명은 세 번째로 자주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자가 자주 사용한다고 한 정보원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4u.net)으로 모두 15명이 언급하였다. 이 가운데 7명은 이것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전자정보원이라고 하였고, 각각 4명씩이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자주 사용한다고 하였다. DBPIA는 모두 12차례 언급되었는데, 가장 자주 사용하는 정보원으로는 3명이 응답하였지만, 8명과 1명이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자주 사용하는 전자정보원이라고 하였다. 그 다음으로 JSTOR는 모두 8명이 자주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 가운데 7명이 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자정보원이라 하였고, 한 명은 두 번째로 자주 사용하는 정보원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이용 빈도의 최상위에 오른 네 가지 정보원, 즉 KISS, Riss4u.net, DBPIA 및 JSTOR는 모두 국내·외의 학술논문 원문을 제공하는 기관이었다.

한편 인문학자들이 사용하는 전자정보원이 매우 분산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들 가운데 주제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한국학에 관련된 정보원이 비교적 자주 언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모두 7명의 응답자가 한국학중앙연구원 웹사이트 혹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나 '디지털한국학'을 정기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였고,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종합정보센터의 '한국역사 정보통합시스템'도 4명이 언급하였다. 그밖에 국립중앙도서관 고서종합목록(1명), 서울대규장각(3명), 민족문화추진회(3명), 장서각(2명),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자 데이터베이스(1명) 등이 있다. 이들 한국학 정보원은 각각 언급된 빈도는 많지 않았어도, 전체적으로 정보원이 분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제 면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하겠다.

인문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정보원들이 다양하게 분산된 이유는 우선 응답자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전자정보원의 패턴을 추출하기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이전의 다른 연구(Bates 1996)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인문학자들이 대부분 개인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정보원이 많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연구자들이 이용하는 정보원의 분산에 대해서는 영국의 Research Information Network 연구(2006)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이 연구는 영국 대학 소속 연구자들 가운데 395명의 전화 인터뷰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일반 검색 엔진, 도서관 포털과 목록, 전문(specialist) 주제 엔진 및 주제 게이트웨이 같은 자원 발견 소스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이들이 열거하는 소스들은 매우 명백하게 "길게 늘어져 있음(long tail)"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구글 및 관련 사이트, Web of Science/Web of Knowledge, Science Direct 같이 많은 연구자들이 동시에 열거하는 자원은 매우 적고, COPAC과 같은 것들도 비교적 자주 언급이 되었지만, 모든 다른 자원들은 각각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열거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인문학자들의 전자정보원 이용 분산도 그러한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한편 인문학자들이 매우 분산된 다양한 전자정보원에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몇몇 대학도서관들의 웹사이트를 참고로 살펴 본 결과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들이 제공하는 접근 가능한 외부자원에 대한 링크의 범주는 매우 다양함을 보여 주었다. 예를 들어,

A대학교 학술정보원은 홈페이지 전면에서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NDSL),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RISS, 한국언론재단의 미디어가온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며, Site Link의 메뉴를 통해 서울대학교 등 상호대차가 가능한 8개 대학도서관으로 갈 수 있게 해준다. 또한 LibWeb(Libraries on the Web)<sup>3)</sup>을 통해 다른 나라 도서관들에 대한 링크를 제공해 주고 있다. B대학교 도서관은 국가전자도서관(National Digital Library), 학위는 문원문공동이용협의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에 대한 링크를 제공해 주고 있다. 국가전자도서관을 통해서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지식포털 등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Site Link의 '바로 가기'는 OCLC First Search, 전자저널 기사검색 등과 함께 국내학술지원문(KISS, DBPIA), LAWnB, KS(한국산업규격), 조선왕조실록 등에 대한 링크를 제공한다.

C대학교 도서관은 '인터넷정보사이트' 링크

를 두고, 그 안에서 참고정보원, 학술정보검색 사이트, 국내외/도서관, 검색엔진이라는 네 개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참고정보원'에서는 사전, 인물정보, 연감 등 각종 참고자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검색엔진'에서는 야후, 네이버, 심마니, Lycos, WebCrawler 등 각종 국내·외 검색엔진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학술정보검색사이트'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국가전자도서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식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 4.4 전자정보원의 장·단점에 관한 인식

##### 4.4.1 전자정보원의 장점

〈표 8〉은 인문학자들이 자신의 주제 분야에서 연구자료 및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전자정보원이 전통적인 인쇄/비전자형 정보원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모두 71명이 응답한 내용에서 가장 빈

〈표 8〉 전자정보원이 인쇄/비전자형 정보원보다 나은 점

(1) 편이성	편이성/편리성	2(2.8%)
	검색 편이성: 검색 용이/검색의 편이성/수시검색/연구실에서 검색가능/바로 찾을 수 있다/검색기능/다양한 검색방법	12(16.9%)
	관리/보관 편이성: 보관 검색 쉬움/목록의 정리	5(7.0%)
	접근 편이성: 언제든지 접근가능/자료접근이 쉬움/수집 편리/접근의 용이성(도서관 대출보다)/입수 절차의 편이와 신속성/절차 간편/필요한 주제어 검색을 통해 접근성이 뛰어남	14(19.7%)
(2) 내용	자료의 내용과 범위: 뜻밖의 자료 획득/오래된 자료 입수 가능/소속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자료를 폭넓게 입수 가능/최신 연구동향/풍부한 자원/풍부함/훨씬 많은 정보검색 가능/포괄성과 검색기능	8(11.3%)
(3)	경제성: 무료 즉각 다운/학술지 구입 비용 절감	2(2.8%)
(4)	신속성: 시간/신속성/정보입수, 접근, 자료 확인의 신속성/빠른 서비스/신속/정확/검색시간 단축/신속성	28(39.4%)
응답자 총수		71명(100%)

3) <http://lists.webjunction.org/libweb/>

번하게 등장한 키워드는 편이성과 신속성이었지만, 그 밖의 개념들도 서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응답의 범주를 완전히 상호배타적으로 분류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들을 요약하여 편이성, 내용, 경제성, 신속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언급한 것은 편이성이다(33명, 46.4%). 응답자들 가운데 자세한 설명 없이 “편이성” 혹은 “편리성”을 언급한 사람은 단 두 사람이었지만(2.8%), 다른 응답자들은 접근, 검색, 관리, 이용 등 여러 구체적인 측면에서 편이성을 언급하였다. 검색의 편이성을 언급한 응답자는 16.9%(12명)로 이들은 검색이 용이함, 수시 검색이 가능함, 연구실에서 검색 가능함, 검색 기능이 편리함, 다양한 검색방법이 있음, 바로 찾을 수 있음 등의 장점을 지적하였다. 접근의 편이성 면에서는 18.3%(13명)가 도서관에 직접가지 않아도 됨, 쉽게 접근할 수 있음, 얻을 수 있는 절차가 덜 복잡하고 빠름, 도서관 대출보다 접근이 용이함, 절차가 간편함, 필요한 주제어 검색을 통한 접근성이 뛰어난 등을 언급하였다. 특히 “전공 상 외국자료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외국 원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통해 한국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니 반갑기만 하다”고 한 응답자도 있었다. 전체의 7.0%(5명)는 관리/보관의 편이성으로서 관리와 보관이 편리함, 보관 검색이 쉬움, 목록 정리가 편리함 등을 언급하였다.

응답자의 39.4%(28명)는 전자정보원의 가장 큰 장점으로 신속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였다. 이들은 “신속하다”, “신속성”, “신속/정확”, “시간 단축”, “자료 확인이 신속함”, “검색 시간 단축”, “빠른 서비스” 등을 언급하였다.

한편 11.3%(8명)는 전자정보원의 가장 큰 장점으로 자료의 내용과 범위를 언급하였다. 이들은 뜻밖의 자료를 획득하거나, 오래된 자료를 입수할 수 있음, 소속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자료를 폭넓게 입수할 수 있음, 최신 연구동향을 알 수 있음, 자원이 풍부함, 훨씬 많은 정보검색이 가능함, 포괄성과 검색기능이 있음 등을 언급하였다. 적은 수이긴 하지만 두 사람(2.8%)은 자료를 무료로 즉각 다운로드할 수 있음과 학술지 구입 비용이 절감되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전자정보원의 가장 큰 장점이 경제성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비교할 만한 Gardiner, McMenemy와 Chowdhury의 연구에서 영국의 연구자들은 전자자료의 가장 큰 장점이 “시간 절감”이라고 하였다(2006, p.353). 분야별로는 다소 견해차가 있어, 영문학 연구자는 35%가 강하게(strongly) 동의하고, 12%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비즈니스/경영학 연구자는 73%가, CIS 연구자는 63%가 각각 강하게 동의하였다. 이 연구는 전자정보원의 특성에 관한 서술문항에서 동의 여부 및 동의 정도를 조사하였는데, 많은 응답자들(63%)이 전자정보자료는 인쇄자료보다 훨씬 편리하다고 강하게 인식하였으나, 사용하기 쉽다는 의견에는 그리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전자자료에서 얻은 정보가 인쇄자료보다 더 적합하거나 신뢰할 만하다는 의견에는 대다수가 동의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고, 보다 최신의 정보를 준다는 점에는 74% 정도가 어느 정도 동의하였다. 그밖에도 접근의 속도는 전자정보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로 인식되었고, 데스크탑에서의 접근 능력, 컴퓨터에서 정보의 프린트 능력, 하드드라이브나 디스



크의 저장, 정보의 관련된 소스로의 링크 존재, 및 전자정보의 휴대가능성(portability) 등도 모든 분야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다.

#### 4.4.2 전자정보원의 단점

〈표 9〉는 인문학자들이 자신의 주제 분야에서 연구자료 및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전자정보원이 전통적인 인쇄/비전자형 정보원보다 못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모두 48명의 응답자들이 기술한 단점들의 범주를 완전히 상호배타적으로 분류하기 어려웠으나, 앞서의 장점과 마찬가지로 편이성, 내용, 경제성, 신속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전자정보원의 단점으로 가장 많은 수의 응답자들이 언급한 것 역시 편이성이다(29명, 60.4%). 이들은 전자정보원이 검색, 관리, 접근 등 편이성의 여러 면에서 불편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먼저 응답자의 20.8%(10명)가 검색의 불편을 언급하였는데, 이들은 자료 검색과 선택의 어려움, 불필요한 정보가 너무 많음, 유효한 정보의 선별이 어려움, 원문입수의 어려움, 오래된 자료를 구하기 어려움, 전자/온라인정보이용법을 잘 모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 다른 20.8%(10명)는 복사(인쇄)의 불편과 번거로움, 복사 시 오탈자 발생, 인쇄상태, 다운받아 프린트하기 어려움, 가독성이 떨어짐, 액정화면에 눈이 피로함, 읽기 불편함 및 해상도 등과 같은 이용의 불편을 지적하였다. 응답자의 10.4%(5명)는 관리/보관의 불편을 언급하였다. 이들은 보관 정리의 불편, 지속적 관리의 어려움, 데이터의 정리를 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 1회적 소비라는 인식으로 지속적 자료소장이 어려움 등을 지적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8.3%(4명)는 접근의 불편을

〈표 9〉 전자정보원이 인쇄/비전자형 정보원보다 못한 점

(1) 편이성	검색 편이성: 자료 검색 과 선택의 어려움/불필요한 정보가 너무 많음/유효한 정보의 선별이 어려움/필요한 자료의 선별 곤란/해당자료를 찾기 어려움/관련 자료 검색이 어려움/원문입수의 문제: 원문(full-text)이 없음/최신자료는 찾기 쉬우나 오래된 자료는 원문서비스가 안 되는 경우 있음/원문서비스 필요/원문 없이 제목만 검색될 경우/전자/온라인정보이용법을 잘 모름	10(20.8%)
	관리/보관 편이성: 보관 정리의 불편/지속적 관리 어려움/데이터 정리를 위한 시간과 노력 필요/1회적 소비라는 인식으로 지속적 자료소장 안 됨	5(10.4%)
	접근 편이성: 가지고 다니며 볼 수 없음/제한된 장소에서만 서비스를 받음/자료제한/접근기회 차단	4(8.3%)
	이용 편이성: 복사(인쇄) 불편/복사 시 오탈자 발생/인쇄 필요의 번거로움/인쇄상태/잘 다운받아 프린트하기 곤란/가독성/가독성이 떨어짐/액정화면-눈의 피로/읽기 불편/해상도	10(20.8%)
(2) 내용	자료의 내용과 범위: 간혹 설명하지 않음/중중 페이지(원본)표시가 안 됨/인용서지사항 불분명/목록만으로는 모든 내용을 알 수 없음/넓은 영역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지 못함/고서, 회귀본이 확보되지 않음	7(14.6%)
	정보의 품질: 검증된 사실인지에 대한 의구심/정확도가 떨어짐/정확성/정확성과 전문성/전산화 과정에서 오류가 많음(오자, 탈자)/자료가 다소 미흡/미비함/내용 부정확/원 자료의 경우 100% 정확성 신뢰 못함	9(18.7%)
(3)	경제성: 원문접근 비용/비용청구의 문제	2(4.2%)
(4)	신속성: 검색어를 찾은 후 최종자료를 찾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모됨	1(2.1%)
	응답자 총수	48명(100%)

언급하였다. 이들은 가지고 다니며 볼 수 없음, 제한된 장소에서만 서비스를 받음, 자료 제한 및 접근기회 차단 등의 불편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 전자자원에 대한 접근의 문제는 그리 많은 응답자들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영국의 Research Information Network(RIN)이 위탁한 연구에서는 심각하게 지적된 바 있다. 이 RIN 연구는 영국의 연구 커뮤니티의 자원 발견 및 이용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영국 전역의 대학에서 기관, 주제 분야 및 지역을 포괄하면서 395명의 연구자와 55명의 사서들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자원에 항상 접근하지는 못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불편 중 하나라고 지적하였다(Research Information Network 2006, p.6). 이들은 초록·색인 데이터베이스, 웹 포털, 인터넷 및 도서관 목록과 포털, 사서 등을 포함하는 연구 발견 서비스(research discovery services) 자체에 대해 불만을 갖기보다는 거기에서 식별된 소스와 자료에 접근하는 데 대한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연구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검색된 문헌이나 기타 소스를 실제로 제공하는 과정의 “최종 단계(last mile)”이었고, 그런 만큼 가장 빈번하게 지적된 문제점은 구독 장애 때문에 학술지 논문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서들 또한 발견 도구 자체의 문제보다는 온라인 학술지에 대한 접근이 핵심적 문제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RIN 연구는 물론 인문학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야에서든 실제 원문을 최종적으로 얻는데 있어서의 불편이 큰 문제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전체 응답자의 33.3%(18명)는

전자정보원의 내용적 특성에 따른 불편을 언급하였다. 먼저 자료의 내용과 범위의 불편은 14.6%(7명)가 지적하였고, 이들은 종종 페이지(원본)표시가 안 됨, 인용서지사항이 불분명함, 목록만으로는 모든 내용을 알 수 없음, 넓은 영역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지 못함, 고서, 희귀본이 확보되지 않음 등의 문제점을 들었다. 정보의 품질은 18.7%(9명)가 검증된 사실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김, 정확도가 떨어짐, 정확성과 전문성, 전산화 과정에서 오류가 많음(오자, 탈자), 자료가 미흡함, 내용이 부정확함, 원자료의 경우 100% 정확성을 신뢰 못함 등의 불편요인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은 Gardiner 등의 연구에서도 컴퓨터정보공학이나 비즈니스/경영학 분야의 연구자들보다 영문학 연구자들이 특히 전자정보자원의 신뢰성(Reliability), 열악한 품질 등에 대하여 더 많이 지적하였던 것(2006, pp.354-5)과도 관련이 있는 발견이라고 하겠다.

이 연구에서 두 사람(4.2%)이 원문접근 비용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한 사람(2.1%)이 검색어를 찾은 후 최종자료를 찾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였다. 앞에서 동일한 수의 응답자들이 자료를 무료로 즉각 다운로드 할 수 있고, 학술지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지적했던 것과 비교하면, 동일한 측면의 이점을 모든 이용자가 공감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영국의 연구자들이 전자자원의 이용에 관련하여 지적한 가장 큰 문제점은 접근 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응답자의 50%가 이를 지적하였고, 컴퓨터 스크린에서 읽기가 어렵다(40%), 패스워드 사용이 불편하다(35%), 인쇄

자원을 넘길 때처럼 페이지를 뒤적일 수 없다(33%) 등의 문제와 더불어 전자자료의 제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Gardiner, McMenemy and Chowdhury 2006, p.354).

이 연구에서 인문학자들이 전자정보원의 장·단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영국의 SIRU 연구(2002)에서 발견한 내용과 상당히 유사함을 보여준다. 영국의 연구자들은 정보의 전자적 발견, 접근 및 이용 면에서 학문 분야 간에 상당한 차이점을 보여주었는데, 당연히 과학계는 전자적 접근에 가장 편안해 했고, 예술과 인문과학 연구자들이 가장 자신 없어하는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야에서 유사한 패턴은 정보를 전자적으로 발견하는 것(finding)은 가장 쉽고, 접근하는 것(accessing)은 더 어려우며, 그것을 이용하는 것(using)은 훨씬 더 어렵다고 인식한다는 점이었다. 또한 전자문헌의 프린트 카피에 대한 요구는 모든 학문분야 전반에 두드러졌지만, 예술과 인문과학, 지역연구 분야에서 더 강했고, 전자정보의 질과 제공에 관한 염려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인문학자들도 전체적으로 전자정보원을 수용하고 있으나, 이들 정보원의 특성에 대하여 매우 상반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테면, 검색이 용이하고, 수시 검색이 가능하고, 연구실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다양한 검색기능을 사용하여 바로 찾을 수 있다는 등의 검색 편의성을 많은 이용자들이 장점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많은 이용자들이 자료 검색과 선택이 어렵고, 불필요한 정보가 너무 많아 유효한 정보의 선별이 어렵다는 등의 문제점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지

적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검색이 용이하다는 의견과 어렵다는 의견이 공존하는 이유는 전자정보원이 제공하는 기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장점으로 인식하는 반면, 그것을 활용하지 못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장애요인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텍스트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신의 전공분야에 따라 이용 가능한 전자정보원 자체가 제공하는 검색 기능이 상이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말하자면 전자정보원의 장·단점에 대한 견해는 개별 이용자의 이용능력에 따라 다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전자정보원이 가진 속성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의 전임교원인 인문학자들이 대학도서관 환경에서 점차 비중이 커져가는 전자자료 및 전자정보원을 어떤 경로를 통하여 얼마나 입수하고 이용하며, 이들의 장·단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점 등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 살펴본 인문학자들은 현재 연구를 수행하면서 전자자료 및 전자정보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대체로 앞으로 그 이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들은 점차 전자형으로 변화하는 학술정보환경의 흐름에 적절하게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지난 일 년 동안 수행 완료하였거나 현재도 계속 수행 중인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전자형으로 입수한 비율을 보면, 대부분의 인문학자들에게 아직은 전자자료의 비중이 절대적은 아니었다. 그러나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인문학자들 가운데 현재 시점에도 전자자료에 상당히 의존하는 연구자들도 있었다.

둘째, 인문학자들에게 소속 대학도서관 웹사이트는 어느 정도 비중이 높은 전자정보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사분의 일 정도는 지난 일 년 동안 연구를 위해 이용한 전자자료의 41-60% 정도를 자신의 소속기관 도서관 웹사이트(전자컬렉션)에서 입수하였다고 하였고, 응답자의 절반 가량은 전자자료의 50% 이상을 도서관에서 입수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이들은 절대다수가 텍스트 형태의 전자자료를 이용하였고, 서지/초록/색인정보나 수치 데이터 등의 이용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셋째, 인문학자들은 전자정보원의 검색, 접근 및 이용 방법에 대한 자신의 지식 정도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들은 소속기관 도서관이 보유한 전자자원 컬렉션의 접근방법, 소속기관 도서관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외부기관 컬렉션 이용방법 등 자신들이 전자정보원과 온라인 정보를 찾고, 접근하고,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러나 소속기관 도서관이 아닌 웹상에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전자자료를 찾고 처리하는 방법 등의 지식 수준에 대해서는 스스로 그리 높은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넷째, 인문학자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정보원은 매우 다양하고,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들이 정기적으로 사용한다고 한 연구정보의 전자정보원은 모두 110개에 달하였고, 소수의 정보원만이 여러 차례 언급되었을

뿐, 거의 대부분 한두 번씩 밖에 언급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매우 다양한 정보원이 분산되어 있었다. 이들은 전자정보원이 가진 특성 중 검색 편의성을 가장 큰 장점으로 인정한 한편, 검색과 선별의 어려움, 자료 내용의 품질과 신뢰도 등의 문제를 단점으로 지적하였다.

다섯째, 인문학자들을 전임 임용 경력에 따라 신진연구자, 중견연구자, 최고경력자 집단으로 구분하여 전자정보원 이용행태를 교차분석한 결과는 분명 집단별로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집단이 크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의 분석을 시도하지는 않았으나, 단순한 교차분석의 결과는 대체로 신진연구자들은 다른 두 집단보다 전자정보원을 많이 활용하고, 이용이나 접근방법에 대한 인지도가 비교적 높음을 보여주었다.

상기한 바와 같은 인문학자들의 전자자료 및 전자정보원 이용행태 및 인식의 면모는 대학도서관이 이들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장서,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몇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첫째, 대학도서관 웹사이트는 주요한 내부 및 외부 전자자원의 관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인문학자들이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전자정보원의 성격이 매우 다양하여 <표 7>에 열거된 바와 같이 110여 개의 전자정보원이 몇 개의 학술지 논문 제공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분산되어 있다는 것은 각각의 전자정보원이 이를 언급한 연구자 각각에게는 중요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은 반드시 대학도서관이 개입하지 않아도 이용자가 그냥 데스크탑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처럼 개별적으로

필요한 전자정보원의 선택은 연구자 개인에게 맡겨둘 수밖에 없다. 대학도서관 웹사이트에서 이 연구에서 인문학자들이 각기 열거한 것과 같이 수많은 주요 학·협회, 기관, 단체 등의 웹사이트 리스트를 모두 열거하거나 링크를 걸어 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도서관은 인문학자들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최대한의 공통분모를 추출하여 대학도서관 웹사이트가 어느 정도 관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대학도서관에서 이들을 위해서 이용가능한 주요한 외부 전자자원 및 웹사이트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접근을 제공하는 것은 오랫동안 그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개별 대학도서관이 각각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학도서관들이 연합하여 공동의 노력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둘째, 대학도서관은 또한 진정한 전자자원의 관문 역할을 하려면, 이들 다양한 전자자원을 수집하여 열거하거나 링크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능한 한 단일경로로 접근하고 통합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전자저널, 색인·초록·원문 데이터베이스, 참고자료 등 도서관이 구독하는 전자자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학술지 논문이나 학위논문의 원문에 접근할 수 있는 영리 및 비영리기관, 국가전자도서관이나 국가지식포털과 같은 종합정보원 등에도 가능한 한 단일경로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대학도서관이 웹사이트에서 많은 외부정보원을 수집 및 “소개”하고 있어도, 적절한 접근의 경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용자는 필요한 정보원에 대하여 혼자서 파악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각각의 전자자원 혹

은 정보원에 하나하나 접근하는 수밖에 없다.

주요 선진국의 대학도서관들은 학술정보원의 포털을 구축하고 다양한 소스에서 왔으나 도서관에서 접근 가능한 외부 전자자원까지 ‘싱글 사인 온’을 거쳐 통합검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들도 점차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다소 미비한 상황이다. 대체로 대학도서관이 구독하는 특정한 전자저널이나 웹데이터베이스들을 제외하고는 단일 로그인을 통한 접근이나 통합검색 등은 가능하지 않다. 대학도서관의 이러한 서비스는 인문학자들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이다.

셋째, 대학도서관은 인문학자들을 위하여 도서관 내·외부 전자자원 활용을 위한 “맞춤형” 이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ast(2005)는 인문학자들도 적합한 웹 자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게이트웨이와 검색 엔진 찾는 법을 이해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인문학자들은 대체로 소속기관 도서관이 보유한 전자자원 컬렉션의 접근방법, 소속기관 도서관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외부기관 컬렉션 이용방법, 전문적 온라인 검색 및 검색기술과 기법, 그리고 온라인 정보를 내 요구에 맞게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방법 등은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였으나, 소속기관 도서관이 아닌 웹상에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전자자료를 찾고 처리하는 방법의 지식 수준에 대해서는 스스로 그리 높은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대학도서관이 인문학자들이 각기 필요로 하는 전자정보원을 일일이 찾아 제공해 주기는

어렵다. 따라서 도서관이 각 이용자를 위한 전자자료 및 전자정보원을 식별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개별 이용자가 독자적으로 그러한 자료 및 정보원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연구에서 인문학자들이 잘 알지 못한다고 인정한 전자정보를 자신의 요구에 맞게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방법, 그리고 웹에서 신속하고 효과적

으로 고급정보원을 찾는 방법 등을 교육할 필요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교육은 그동안 대학도서관이 시행해 온 것과 같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과 같은 광범한 주제 분야에서의 이용교육이 아니라, 국어국문학, 민속학, 역사학 등과 같이 세분된 주제분야, 다시 말하면 적어도 학과나 학부 전공 단위의 이용교육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 참 고 문 헌

- [1] 윤정옥. 2009. “인문학자의 정보자원 이용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9(1): 7-34.
- [2] Abbott, Andrew. May 2006. *The University Library*. [online]. [cited 2007.7.1]. <<http://www.lib.uchicago.edu/staffweb/groups/space/abbott-report.html>>.
- [3] Barrett, Andy. 2005. “The Information-Seeking Habits of Graduate Student Researchers in the Humanities.”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31(4): 324-331.
- [4] Bates, Marcia J. 1996. “Information Needs and Seeking of Scholars and Artists in Relation to Multimedia Materials.” Extracted from the Report to the Getty Research Institute. [online]. [cited 2007.7.1]. <<http://www.gseis.ucla.edu/faculty/bates/scholars.html>>.
- [5] Brockman, William S., Laura Neumann, Carole L. Palmer, and Tonya J. Tidline. December 2001. *Scholarly Work in the Humanities and the Evolving Information Environment*. Council on Library and Information Resources. [online]. [cited 2007.7.1]. <<http://www.clir.org/pubs/reports/pub104>>.
- [6] Bevilacqua, Fabrizia. 2005. “Organizing E-Journals from the Point of View of Humanities: A Case Study at the University of Parma.” *New Library World*, 106(1216/1217): 416-429.
- [7] Case, Donald O. 2003. *Looking for Information: A Survey of Research on Information Seeking, Needs, and Behavior*. Amsterdam: Academic Press.
- [8] Cobbedick, Susie. 1996. “The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Artists: Exploratory Interviews.” *Library Quarterly*, 66(4): 343-372.
- [9] de Tiratel, Susana Romanos. 2000. “Accessing Information Use by Humanists and Social Scientists: A Study at the Universidad de Buenos Aires, Argentina.” *Journal of Academic*

- Librarianship*, 26(5): 346-354.
- [10] East, John W. 2005. "Information Literacy for the Humanities Researcher: A Syllabus Based on Information Habits Research."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31(2): 134-142.
- [11] Education for Change, Ltd., SIRU(University of Brighton), and The Research Partnership. 2002. *Researchers' Use of Libraries and Other Information Sources: Current Patterns and Future Trends: Final Report*(Bristol: Research Support Libraries Group). [online]. [cited 2007.7.1]. <<http://www.rslg.ac.uk/research/libuse/LUrep1.doc>>.
- [12] Evans, G. Edward. with Margaret R. Zarnosky. 2000. *Developing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Collections* 4th ed. Greenwood Village, Colorado: Libraries Unlimited.
- [13] Friedlander, Amy. November 2002. *Dimensions and Use of the Scholarly Information Environment* Washington, D.C.: Digital Library Federation and Council of Library and Information Resources. [online]. [cited 2007.7.1]. <<http://www.clir.org/pub/reports/pub110>>.
- [14] Gardiner, Donna, McMenemy, David, and Chowdhury, Gobinda. 2006. "Snapshot of Information Use Patterns of Academics in British Universities." *Online Information Review*, 30(4): 341-359.
- [15] Herman, Eti. 2003. "Research in Progress: Some Preliminary and Key Insights into the Information Needs of the Contemporary Academic Researcher. Part 1." *Aslib Proceedings*, 56(1): 34-47.
- [16] Herman, Eti. 2004. "Research in Progress, Part 2 -- Some Preliminary and Key Insights into the Information Needs of the Contemporary Academic Researcher. Part 1." *Aslib Proceedings* 56(2): 118-131.
- [17] Hughes, Carol Ann, and Buchanan, Nancy L. 2001. "Use of Electronic Monographs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Library Hi Tech*, 19(4): 368-375.
- [18] Maron, Nancy L., and Smith, K. Kirby. November 2008. "Current Models of Digital Scholarly Communication: Results of an Investigation Conducted by Ithaka for the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Washington, DC: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online]. [cited 2007.7.1]. <<http://www.arl.org/bm~doc/current-models-report.pdf>>.
- [19] OCLC. 2004. *The 2003 OCLC Environmental Scan: Pattern Recognition: Executive Summary*. [online]. [cited 2007.7.1]. <[http://www.oclc.org/reports/escan/downloads/escansummary\\_en.pdf](http://www.oclc.org/reports/escan/downloads/escansummary_en.pdf)>.
- [20] Pankake, Marcia. 1991. "Humanities Research in the 90s: What Scholars Need: What Librarians Can Do." *Library Hi Tech*, 9(1): 9-15.
- [21] Research Information Network. November 2006. *Researchers and Discovery Services: Behaviour*,

- Perceptions and Needs*. A Study Commissioned by the Research Information Network. [online]. [cited 2007.7.1]. <<http://www.rin.ac.uk/files/Reportfinal.pdf>>.
- [22] Talja, Sanna, and Maula, Hanni. 2003. "Reasons for the Use and Non-Use of Electronic Journals and Databases: A Domain Analytic Study in Four Scholarly Disciplines." *Journal of Documentation* 59(6): 673-691.
- [23] Talja, Sanna. 2002. "Information Sharing in Academic Communities: Types and Levels of Collaboration in Information Seeking and Use." *New Review of Information Behavior Research*, 3: 143-160. Quoted in Talja, Sanna, & Maula, Hanni, 2003.
- [24] Tenopir, Carol. 2003. *Use and Users of Electronic Library Resources: An Overview and Analysis of Recent Research Studies*. Washington, D.C.: Council of Library and Information Resources. [online]. [cited 2007.7.1]. <<http://www.clir.org/pubs/reports/pub120>>.
- [25] Troll, A. Denise. "Changes in Usage, Usability, and Use Support." *Forth Northumbria*: 349-354. [online]. [cited 2007.7.1]. <<http://www.libqual.org/documents/admin/troll.pdf>>.
- [26] Troll, A. Denise. 2001. "How and Why Libraries Are Changing?" Draft. [online]. [cited 2007.7.1]. <<http://www.diglib.org/use/whitepaper.htm>>.
- [27] Wiberley, Jr., Stephen E. 1991. "Habits of Humanists: Scholarly Behavior and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Library Hi Tech*, 9(1): 17-21.
- [28] Wiberley, Jr., Stephen E. and Jones, William G. 1989. "Patterns of Information Seeking in the Humanitie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50: 638-645.
- [29] Wiberley, Jr., Stephen E., and William G. Jones. 1994. "Humanists Revisited: A Longitudinal Look at the Adop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College & Research Libraries*, 55: 499-509.
- [30] Wiberley, Jr., Stephen E. and Jones, William G. 2000. "Time and Technology: A Decade Long Look at Humanists' Use of Electronic Information Technology." *College & Research Libraries* 61(5): 421-431.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Cheong-Ok Yoon. 2009. "A Research on the Use of Information Resources of the Humanities Scholar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9(1): 7-34.